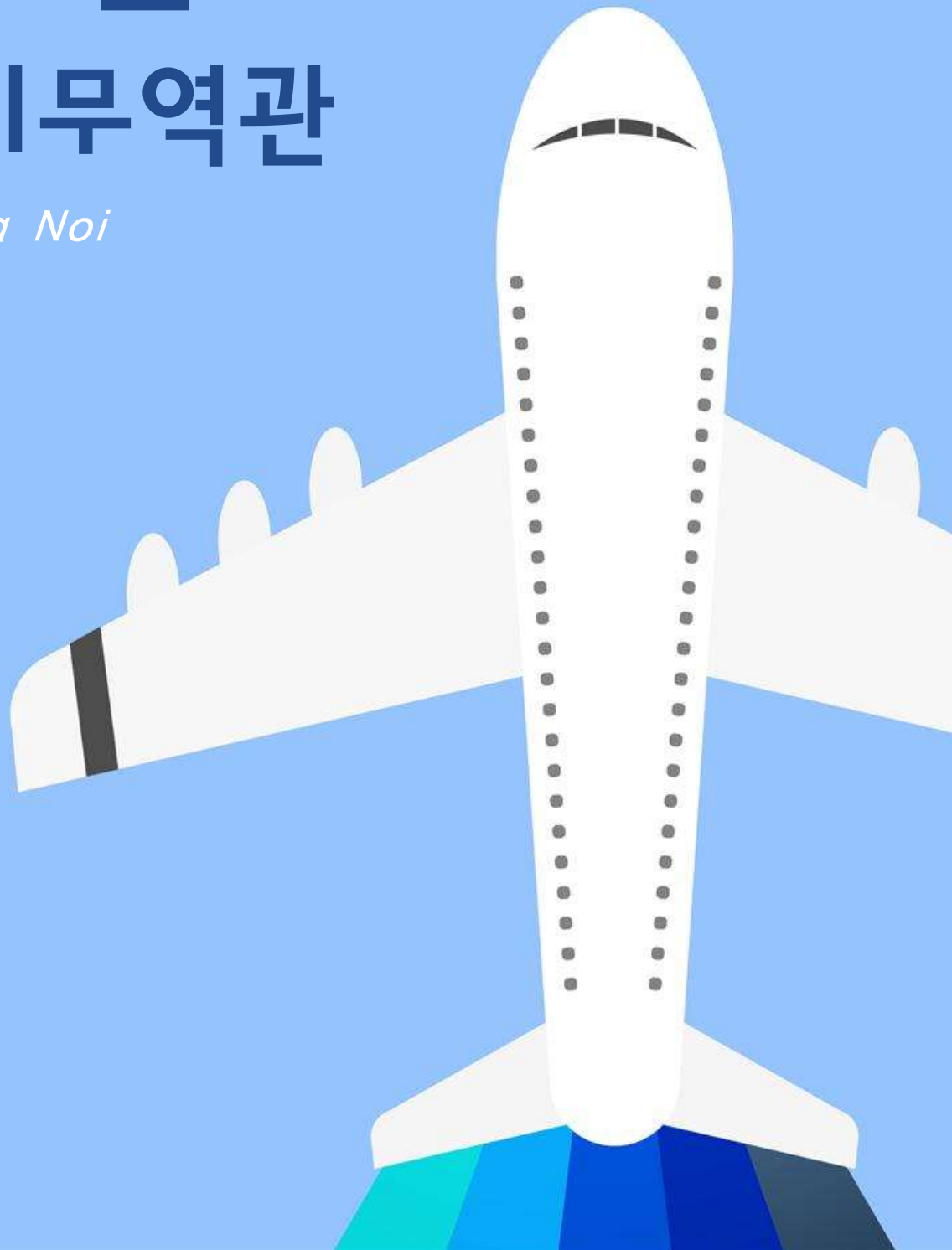


2021 해외출장 가이드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KOTRA Ha Noi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베트남 및 하노이 개황	1
II. 베트남 경제 및 무역·투자 동향	3
III. 베트남 경제 특징과 정책 동향	14
IV. 베트남 경제 전망	24
V. 체류시 참고사항	27
VI. 주요연락처	30

I. 베트남 및 하노이 개황

1. 베트남 개황

- 면 적 : 331,212km² (한반도의 약 1.5배, '20년 베트남 통계청)
- 인 구 : 97,582,700명 ('20년, 베트남 통계청)
- G D P : 약 2,712억 달러 ('20년, 베트남 통계청)
- 1인당 GDP : 약 2,779달러 ('20년, 베트남 통계청)
- 경제성장률 : 2.91% ('20년, 베트남 통계청)
- 물가상승률 : 3.23% ('20년, 베트남 통계청)
- 환 율 : 1달러 당 VND 23,134 ('21.9.21.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 환율 기준)
- 시 차 : 한국 보다 2시간 늦음
- 민 족 : 킨족(총 인구의 약 85.7%), 타이족, 크메르족 등 54개 소수 민족
- 종 교 : 무교(8,300만 명) 불교(460 만 명), 가톨릭(586만 명), 개신교(96만 명) 등

('19년 베트남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정치체제 : 사회주의 공화국(공산당 일당)

□ 주요 지도자

- 당 서기장 : 응웬 푸 쩡(Nguyen Phu Trong)
- 국가주석 : 응웬 쉐언 푸크(Nguyen Xuan Phuc)
- 총리 : 팜 밍 쩡(Pham Minh Chinh)
- 국회의장 : 브엉 딩 후에(Vuong Dinh Hue)



2. 하노이 개황

□ 기본개황

- 면 적 : 3,358.6km²
- 인 구 : 825만명('20년)
- * 호치민 923만명, 하이퐁 205만명, 껀터 124만명, 다낭 117만 명
- 평균기온 : 연평균 25.3°C('20년)
- 평균습도 : 연평균 75%('20년)



자료원 : WIKIPEDIA OPEN ENCYCLOPEDIA

□ 지명유래 및 역사

- 중국 지배시기에는 행정중심지로 다이라(Dai La, 大羅)성으로 불렸음
- 1010년 리(Ly, 李)왕조의 창시자인 리타이또(Ly Thai To, 李太祖) 왕이 호아르(Hoa Lu)에서 하노이로 수도를 옮김(당시 이름은 Thang Long, 昇龍)
- 1397년 쩐(Tran, 陳)왕조 말기 왕실의 외척이며 권신이었던 호꾸리(Ho Quy Ly)가 타잉호아(Thanh Hoa)에 새 수도를 건설하면서, 타잉호아를 떼이도(Tay Do, 西都)라 칭하고 탕롱을 동도(Dong Do, 東都)라 칭함
- 1428년 후기 레(Le, 黎) 왕조를 수립한 레타이또(Le Thai To, 黎太祖)가 고향인 타잉호아 람썸(Lam Son)을 람깁(Lam Kinh, 藍京)이라 하고 탕롱을 동깁(Dong Kinh, 東京)이라 개칭
 - 17세기 이래 유럽인들은 동깁을 톤킹(Tonkin)으로 표기
- 19세기 초 응웬(Nguyen, 阮) 왕조는 수도를 중부도시 후에(Hue)로 옮기고, 탕롱이라는 지명을 '하노이(Ha Noi, 河內)로 개칭(Red River와 To Lich River의 사이)
- 1945년 독립 후 하노이를 다시 수도로 지정
- 1954~197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수도(북베트남)
- 1976~현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도
 - 사이공은 호찌민시로 이름 변경

II. 베트남 경제 및 무역-투자 동향

1. 베트남 거시경제동향

구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GDP	억 달러	1,915	2,013	2,232	2,427	2,607	2,712
GDP 증가율	%	6.7	6.2	6.81	7.08	7.02	2.91
1인당 GDP	달러	2,088	2,171	2,385	2,587	2,715	2,779
산업생산증가율	%	9.8	7.5	9.4	10.2	9.1	3.36
수출	억 달러	1,620.2	1,765.8	2,140	2,435	2,643	2,826.5
수입	억 달러	1,665.7	1,748.0	2,111	2,367	2,534	2,627
무역수지	억 달러	-35.5	17.8	29.0	72.0	111.2	199.5
물가상승률	%	0.63	2.67	3.53	1.48	2.79	3.23
외채	억 달러	396.4	429.1	463.2	469.7	478.1	491.3
공채	억 달러	943.1	1,074.9	1,152.4	1,217.4	1,215.7	1,588.0
외환보유고	억 달러	300	410	505	625	800	948
평균환율	VND/\$	21,698	21,935	22,451	22,606	23,155	23,208
기준금리	%	6.5	6.5	6.25	6.25	6	4
FDI	억 달러	228	244	359	355	380	285
외국인관광객	천 명	7,944	10,010	12,900	15,498	18,009	3,837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재무부, 베트남 관세총국, 베트남 기획투자부, 베트남 중앙은행, ADB, WB, IMF

2. 대외 교역

□ 베트남의 대외 교역 동향

- 2021년 1~8월 누계 베트남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 2,135억 2,436만 달러, 2,161억 5,48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 21.8%, 33.7% 증가
- 동 기간의 무역수지는 26억 3,053만 달러 적자를 기록
- *4월 말부터 시작된 베트남의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일부 수출기업의 조업 중단 조치로 인해 수출실적에 부정적 영향 추정

<베트남의 대외 교역 동향>

(단위: US\$ 백만,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분기	2021년 8월
수출	176,581 (9.0)	214,019 (21.2)	243,483 (13.2)	264,289 (8.4)	282,655 (7.0)	158,335 (29.0)	213,524 (21.8)
수입	174,804 (5.6)	211,104 (20.8)	236,688 (11.1)	253,071 (6.8)	262,701 (3.7)	159,327 (36.3)	216,155 (33.7)
무역수지	1,777	2,916	6,795	11,118	19,954	-992	-2,631

자료원 : 베트남 관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2021년 8월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 현황>

(단위: US\$ 십억, %)

순위	국가명	수출액(비중)	순위	국가명	수입액(비중)
1	미국	61.9(29.0)	1	중국	72.0(33.3)
2	중국	33.4(15.6)	2	한국	35.1(16.2)
3	한국	14.1(6.6)	3	일본	14.5(6.7)
4	일본	13.3(6.2)	4	대만	13.6(6.3)
5	홍콩	7.4(3.5)	5	미국	10.3(4.8)
6	네덜란드	5.1(2.4)	6	태국	8.6(4.0)
7	독일	4.7(2.2)	7	말레이시아	5.4(2.5)
8	인도	4.0(1.9)	8	호주	5.2(2.4)
9	태국	3.9(1.8)	9	인도네시아	4.9(2.3)
10	영국	3.9(1.8)	10	인도	4.7(2.2)
기 타		61.9(29.0)	기 타		41.8(19.3)
합 계		213.5(100.0)	합 계		216.2(100.0)

자료원 : 베트남 관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2021년 8월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	8월 기준(누적)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
1	전화기, 무선기기 및 그 부분품	35,326	11.9	16.5
2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	31,800	14.8	14.9
3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23,153	50.6	10.8
4	섬유 의류제품	21,110	9.4	9.9
5	신발류	12,629	16.1	5.9
6	목재 및 목제품	10,389	41.4	4.9
7	수송수단 및 그 부속품	7,168	34.4	3.4
8	철강재	7,060	127.0	3.3
9	수산물	5,569	7.0	2.6
10	원사류	3,644	63.8	1.7
기 타		55,677	-	26.1
총 계		213,524	21.8	100.0

자료원 : 베트남 관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2021년 8월 베트남의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	8월 기준(누적)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	46,839	20.9	21.7
2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31,164	35.5	14.4
3	전화기, 무선기기 및 그 부분품	12,588	43.6	5.8
4	직물	9,525	27.9	4.4
5	플라스틱 원료	8,046	52.9	3.7
6	철강재	7,727	42.4	3.6
7	비금속류	5,843	54.5	2.7

8	플라스틱 제품	5,301	17.7	2.5
9	화학제품	5,036	42.0	2.3
10	화학물질	5,015	58.9	2.3
	기 타	79,072	-	36.6
	총 계	216,155	33.7	100.0

자료원 : 베트남 관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 한-베트남 교역 동향

- 양국이 수교를 체결한 1992년 4억 93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0년 100억 달러 규모를 돌파(129억 8300만 달러)한 이래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7년 600억 달러(639억 31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9년 692억 4,913만 달러 달성

*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베트남의 위상 변화

- 수출 : ('14)6위 → ('15~16)4위 → ('17~20)3위 → ('21.8)3위
- 수입 : ('14)15위 → ('15)10위 → ('16)8위 → ('17)7위 → ('18)7위→('19~20)5위→('21.8)5위
- 교역 : ('14)8위 → ('15~20)4위 → ('21.8)4위

* '21.8월 기준,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3위 교역대상국(수출 3위, 수입 2위)

- 2021년 8월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교역국이며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13% 증가한 310.8억 달러 기록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액은 212.6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1%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98.18억 달러로 전년대비 16.2% 증가

<한국의 대(對) 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US\$ 백만,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021년 8월
수출 (한→베)	32,630 (17.5)	47,754 (46.3)	48,622 (1.8)	48,178 (△0.9)	48,551 (0.7)	12,764 (6.3)	21,265 (20.5)
수입 (베→한)	12,495 (27.4)	16,177 (29.5)	19,643 (21.4)	21,071 (7.3)	20,579 (△2.3)	5,836 (11.1)	9,818 (16.2)
무역수지	20,135	31,577	28,979	27,106	18,629	6,928	11,446
교역규모	45,125	63,931 (41.7)	68,265 (6.8)	69,249 (1.4)	69,090 (△0.23)	18,600 (7.7)	31,083 (19.1)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률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품목별 한-베트남 수출입 현황**

- 대(對) 베트남 수출의 주요 품목은 제조업과 관련된 제품 및 부분품으로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기구부품이 대(對)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절반가량(53.2%, 2021년 8월 기준)을 차지
-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각 14.3%, 42.1%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증가 및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전자제품 수요 증가와 베트남 진출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2021년 8월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비중
1	반도체	8,539	14.3	24.0
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728	42.1	18.9
3	무선통신기기	2,130	-3.1	6.0
4	합성수지	1,599	61.0	4.5
5	기구부품	1,543	11.0	4.3
6	철강판	849	23.3	2.4
7	석유제품	803	-4.5	2.3
8	플라스틱 제품	762	4.8	2.1
9	계측제어분석기	720	55.3	2.0
10	편직물	611	18.7	1.7
	기타	11,345	-	31.8
	합계	35,629	14.9	100.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2021년 8월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수입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비중
1	무선통신기기	3,669	1.4	23.3
2	의류	2,050	2.6	13.0
3	컴퓨터	1,241	80.8	7.9
4	신변잡화	769	6.1	4.9
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35	-27.6	3.4
6	목재류	510	23.2	3.2
7	산업용 전기기기	488	36.6	3.1
8	반도체	448	11.6	2.9

9	기구부품	382	27.9	2.4
10	영상기기	327	19.7	2.1
	기타	5,295	-	33.7
	합계	15,714	14.9	100.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3.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동향

□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FDI) 총괄

- 2021년 1~6월, 베트남 FDI 총 유치액 전년 동기 대비 2.5% 소폭 하락
 - 신규+증액 투자 프로젝트는 전년 동기 대비 투자액 12.3% 증가, 투자건수는 34.5% 감소
 - 코로나 이전 시기인 '19년 1~6월 베트남 FDI 총액 184.6억 달러엔 크게 못 미쳐
 - 전체 FDI 투자 중 제조업(69.7억 달러), 발전/용수업(53.4억 달러) 투자 합계가 전체 투자의 약 80% 차지
 - 전 세계적인 코로나 감염 재확산으로 인해 그간 회복세를 보이던 신규 제조공장 설립 및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투자 회복세도 주춤한 상황

<연도별 외국인 총투자액>

(단위: US\$ 백만, 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6월
투자금액	26,890.5	37,100.6	35,465.5	38,951.7	28,530.1	15,271.09
증감률(전년대비)	-	37.9%	4.4%	9.8%	△24.9%	△2.6%
투자 건수	9,832	9,000	10,711	16,227	9,804	3,119
증감률(전년대비)	-	△8.4%	19.0%	51.4%	△35.0%	△48.6%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1.6.20. 기준, '21년 증감률은 '20년 동기대비 기준

<전년 동기대비 외국인투자 변동현황>

(단위: US\$ 백만, 건)

기간	신규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매입		총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2020.1~6월	1,418	8,437.41	526	3,723.56	4,125	3,510.09	15,671.06

2021.1~6월	804	9,549.06	460	4,116.44	1,855	1,605.59	15,271.0 ₉
증감률(%)	△43.3%	13.2%	△12.5%	10.6%	△55.0%	△54.3%	△2.6%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1.6.20. 기준, '21년 증감률은 '20년 동기대비 기준

- 2021년 1~6월 기간 외국인 투자는 제조업 및 전력, 가스, 용수 생산 및 판매업이 선도, 부동산 경영 및 건설, 도소매 유통업 투자는 점진적 회복세
 - 2021년 1~6월 제조업 분야 FDI 유치액은 전년 동기대비 12.8% 하락하며 아직 코로나 상황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코로나 이전인 '19년 1~6월 제조업 투자의약 53% 수준에 머물러
 - 베트남 내 코로나 재확산 및 사회적 격리 시행, 관광객 입국 제한 등으로 FDI의 베트남 유통 및 소비시장 투자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이 쉽지 않음
- *'21년 1~6월 : 부동산 경영업(13.2억 달러) 및 도소매 분야(10.5억 달러) 투자 코로나 이전인 '19년 1~6월 투자 대비 각각 89%, 40% 수준

<코로나19 이전 대비 외국인 제조업 투자변동 현황>

(단위: US\$ 백만, 건)

국가명	신규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매입		총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2019.1-6월	605	5,440.05	396	2,622.88	1,134	5,090.89	13,153.8 ₂
2020.1-6월	448	3,571.85	333	3,238.21	1,029	1,195.50	8,005.56
2021.1-6월	273	3,099.73	286	3,389.09	357	488.98	6,977.80
'19.6월 대비 '20.6월 투자비율(%)	45.1%	56.9%	72.2%	129.2%	31.4%	9.6%	53.4%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1.6.20. 기준, 기준점 '19. 6월=100%

-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 투자는 침체되었던 베트남 FDI 유치에 활력 제고
 - 제조업 분야 주요 신규 프로젝트로는 Everwin Precision 2억 달러(홍콩), Fukang Technology Foxconn 2.7억 달러(싱가포르), Hayward Quartz 1.1억 달러(미국), Ojtex 6천만 달러(일본) 등이 투자됨
 - 증액 프로젝트로는 LG 디스플레이 7.5억 달러(한국), Intel 4.7억 달러(미국), Radian Tire

3.1억 달러(중국) 등이 투자됨

- 전력, 가스, 용수 생산 및 판매업의 경우 싱가포르의 Long An LNG 1, 2 발전소 투자(31억 달러), 일본 Marubeni의 O Mon 2 화력발전소 투자 (13억 달러)가 큰 부분 차지

<연도별 주요산업 분야별 외국인 투자비율>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6월
제조업	71.9	44.3	46.8	64.7	47.6	45.6
부동산 경영업	4.7	8.4	18.7	10.1	14.6	7.5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	2.9	6.0	10.4	6.8	5.7	2.7
전력, 가스, 용수 생산 및 판매업	0.6	22.6	4.6	2.6	18.0	34.9
호텔&요식업	1.1	1.4	1.6	1.2	1.1	0.6
건설업	2.2	3.4	3.3	2.5	1.9	0.7
물류, 운송업	3.3	1.2	1.1	0.9	2.1	2.4
전문, 과학기술 활동	3.6	3.1	6.1	4.1	4.7	3.1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MPI), 2021.6.20. 투자금액 기준. '21년 증감률은 '20년 동기대비 기준

- 주요 3국(한국, 일본, 싱가포르) 투자 베트남 전체 FDI의 49.6% 차지
- 2021년 6월 누계기준, 베트남 총 외국인 투자유치액은 3,978억 달러로 1위는 한국이며 총 외국인 투자의 18.1% 차지 다음으로 일본(15.8%), 싱가포르(15.6%), 대만(8.7%) 순
- 2021년 1~6월 투자는 싱가포르(309개 프로젝트, 56.3억 달러)가 1위, 다음으로 일본(260개, 24.4억 달러), 한국(926개, 20.5억 달러), 중국(386개, 12.6억 달러) 순
- 동 기간 중 싱가포르는 Long An LNG 1, 2 사업(31억 달러), 폭스콘(2.7억 달러) 등을 투자하였으며 일본은 Marubeni의 O Mon 2 화력발전소 투자(13억 달러), 한국은 LG 디스플레이 추가 투자(7.5억 달러) 진행

<對 베트남 국가별 투자 누적액 상위 8개국의 최근 5년 투자동향>

(단위: US\$ 백만)

순위	국가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88~21년 6월 누계
1	한국	총투자	8,719.9 (2위)	7,212.0 (2위)	8,344.4 (1위)	3,949.1 (2위)	2,053.2 (3위)	72,076.4
		그린필드투자	7,801.8 (2위)	5,928.5 (2위)	5,647.3 (1위)	2,945.5 (2위)	1,657.9 (3위)	
2	일본	총투자	9,204.6 (1위)	8,598.9 (1위)	4,169.2 (4위)	2,367.9 (4위)	2,442.5 (2위)	63,059.0

		그린필드투자	8,718.6 (1위)	7,989.3 (1위)	2,922.5 (4위)	1,218.9 (7위)	2,327.5 (2위)	
3	싱가포르	총투자	5,894.8 (3위)	5,071.0 (3위)	4,421.2 (3위)	8,994.1 (1위)	5,636.1 (1위)	62,271.1
		그린필드투자	4,939.0 (3위)	3,269.8 (3위)	1,820.3 (5위)	6,828.4 (1위)	5,284.5 (1위)	
4	대만	총투자	1,532.7	1,074.1	1,883.1	2,058.4	882.0	34,858.3
		그린필드투자	1,162.6	679.5	1,167.7	1,706.5	780.7	
5	홍콩	총투자	1,566.6	3,231.6	8,178.3 (2위)	1,995.7	1,025.3	26,690.4
		그린필드투자	1,412.9	1,936.9	3,715.2 (2위)	1,737.3 (4위)	981.9	
6	버진 아일랜드	총투자	1,650.7	1,866.2	1,406.2	902.9	321.2	22,154.5
		그린필드투자	487.3	534.6	821.7	517.3	223.4	
7	중국	총투자	2,137.5	2,464.8	4,115.2	2,459.4 (3위)	1,262.1	19,768.3
		그린필드투자	1,645.8	1,662.5	3,047.7 (3위)	2,069.6 (3위)	1,172.1	
8	말레이시아	총투자	297.6	435.5	220.5	195.0	81.2	12,995.3
		그린필드투자	161.2	282.2	147.5	155.6	17.8	

* 그린필드 투자 : 투자자가 직접 시장에 자금을 들여 투자하고 운영하는 형태(신규+증액/ M&A 및 지분투자 제외)
 자료원 : 베트남 투자청, 순서는 '88년~'21년 4월 누적 투자액순(4.20일 기준), 누적투자액은 그린필드 투자만 집계

<2021년 1-6월 주요 국가별 對 베트남 투자현황>

(단위: US\$ 백만, 건)

순번	국가명	신규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주식매입		총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1	싱가포르	106	4,736.9	43	547.5	160	351.7	5,636.1
2	일본	86	1,656.8	63	670.7	111	114.9	2,442.5
3	한국	187	573.0	137	1,084.9	602	395.3	2,053.2
4	중국	93	678.1	52	494.0	241	89.9	1,262.1
5	홍콩	55	856.4	44	125.6	42	43.3	1,025.2
6	미국	33	110.5	28	670.2	121	101.4	882.0
7	대만	28	300.6	6	6.6	80	36.4	343.6
8	태국	15	141.9	12	81.5	6	97.8	321.2
9	버진아일랜드	21	105.7	9	24.4	19	106.4	236.5
10	네덜란드	13	89.3	5	58.2	15	24.5	172.0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1.4.20. 기준, 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 **對베트남 한국투자 총괄**

- **2021년 1~6월,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총 투자액 및 그린필드 투자(신규+증액) 기준 3위**
 - 동 기간 대 베트남 한국투자는 총투자 기준 **제조업 분야에 약 71.1%가 집중**되었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경영업(9.6%),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6.1%), 전문과학기술업(3.2%) 순임
 - **제조가공업 및 부동산 경영업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73.0%, 381.1%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도소매 및 수리서비스업(-20.2%), 전문과학기술업(-55.8%), 요식업(-41.6%)** 등 코로나 영향이 남아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는 크게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영향**
 - '21년 6개월 간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43.6% 증가** 하였으나, 투자 프로젝트 수는 **-48.1%** 하락하며 투자빈도는 축소됨
*20년 1~6월/21년 1~6월 비교: 전체 프로젝트 수(1,785개 / 926개), 제조업 프로젝트 수: (510개 / 238개)
 - 코로나의 글로벌 3차 확산 및 베트남 코로나 재발생으로 인해 베트남 입국이 제한되며 2020년 말 나타났던 한국기업의 투자 상승흐름 주춤

- **2021년 6월 누계기준, 한국 투자는 여전히 제조업이 이끌어**
 - 누계기준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73.5%) 다음으로 부동산 경영업(13.4%), 건설업(4.0%),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2.1%), 물류운송업(1.4%) 순
 - 특히, **2021년 1~6월 중 제조업 투자비율은 71.1%**로 평균아래 였으며, **유통 수리업, 전문과학 기술업, 정보통신업 분야에서 최근 투자비율이 꾸준히 상승**

<1988년 ~ 2021년 6월 누계, 한국의 분야별 투자현황>

분야	프로젝트 수	투자금액 (US\$ 백만)	산업비중
제조 가공업	4,528	52,981.4	73.5%
부동산 경영업	205	9,636.9	13.4%
건설업	917	2,892.0	4.0%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	1,355	1,494.8	2.1%
물류, 운송업	182	1,023.9	1.4%
호텔 요식업	375	1,020.6	1.4%
기타	1,549	3,026.7	4.2%
총계	9,111	72,076.4	100%

자료원 : 베트남 투자청, 무역관 집계, 2021.6.20. 기준

<2021년 1월 ~ 6월 한국의 대 베트남 주요 산업별 투자 현황>

분야	총투자액 (백만USD)	전년동기대비 투자증감률	그린필드(신규+증자)		브라운필드 (M&A, 주식매입)	
			투자금액 (백만USD)	산업비중	투자금액 (백만USD)	산업비중
제조 가공업	1,459.7	73.0%	1,332.7	80.4%	127.0	32.1%
부동산 경영업	198.7	381.0%	167.4	10.1%	31.3	7.9%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	126.7	△20.2%	23.6	1.4%	103.1	26.1%
전문과학기술업	66.9	△55.9%	39.3	2.4%	27.6	7.0%
용수공급, 폐수 처리	62.5	273.8%	-	-	62.5	15.8%
건설업	57.0	84.3%	49.1	3.0%	7.9	2.0%
정보통신업	31.7	213.5%	21.2	1.3%	10.5	2.7%
전력, 용수, 가스 생산 및 판매업	16.0	55.3%	6.0	0.4%	10.0	2.5%
기타	34.1	△80.3%	18.7	1.0%	15.5	1.5%
총액	2,053.2	43.6%	1,657.9	100%	359.3	100%

자료원 : 베트남 투자청, 무역관 집계, 2021.6.20. 기준

○ 지역별 한국투자, 북부지역 투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 2021년 6월 누계 기준 한국기업의 최대 진출지역은 삼성전자 1공장이 위치한 박닌성으로 전체 투자의 14.9%(107.6억 달러)를 차지 (한국투자 프로젝트 수 956개)
- LG 전자 단지가 있는 하이퐁이 11.3%(81.2억 달러)로 최초로 투자지역 두 번째 순위 달성, 다음으로 하노이 10.8%(77.6억 달러), 동나이 10.3%(74.0억 달러), 타이응우웬 7.8%(55.9억 달러), 호치민 7.2%(52.1억 달러), 순
- 누계 투자금액 기준 지역별 투자는 북부 58.9%, 남부 35.4%, 중부 및 기타 5.7% 순

○ 2021년 1~6월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프로젝트(500만 달러 이상)

순번	프로젝트 명	분야	투자금액 (US백만)	투자시점	투자지역
1	LG DISPLAY (증액투자)	디스플레이	750	'21.2월	하이퐁시
2	SMC HUE(스마트시티, LH)	공단개발	150	'21.4월	트어티엔후에
3	Chadwick Ecopark(증액투자)	교육	35	'21.1월	흥옌성
4	Patron Vina 2법인	전자부품	30	'21.1월	빈푹성
5	PLATEL VINA	전자부품	30	'21.1월	동나이성
6	LS ELECTRIC VIETNAM	전자부품	25	'21.3월	박닌성
7	KOMELON CORP	기계부품	20	21.4월	하남성
8	Chemilens Vina(증액투자)	광학기기	21	'21.1월	하이즈엉성

9	HAEHWA VINA(증액투자)	광학부품	14	'21.1월	푸토성
10	Vina CNS	전자부품	12	'21.1월	박닌성
11	Daewon Auto Vina	자동차부품	12	'21.3월	닌빈성
12	VSSC STEEL CENTER (SAMSUNG C&T)	금속, 철강	11	'21.2월	바리아 붕따우성
13	BEST INNOVATION GLOVE	장갑류	10	'21.4월	빈프억성
14	BUJEON VIETNAM(증액투자)	전자부품	8.6	'21.1월	박닌성
15	BUWON VINA	신발	10	'21.2월	동나이성
16	MJ VIETNAM	임업	7.6	'21.1월	닥농성
17	HANAPROTECH VINA	전자부품	7	'21.1월	푸토성
18	Shinsung Vina	원사	6.5	'21.2월	푸토성
19	PATH MASTERY	장갑류	6.0	'21.3월	동나이성
20	Myeongsung Vina	전자부품	5.0	'21.5월	푸토성

III. 베트남 경제 특징과 정책 동향

1. 베트남 경제 및 시장 특징

□ 코로나19의 역풍을 딛고 세계 최고 수준의 GDP 성장률 기록

- 2020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2.3%에 머무른 반면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2.9%로 세계 최고 수준의 GDP 성장률을 기록
- 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0년 ASEAN 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노동가능인구 1억 3,461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노동력을 보유(베트남 노동가능인구 5,654만 명)
 - 특히 여성의 노동 참여비율(79.6%)이 중국(68.5%)보다 높아 제조업에 있어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추
- 수출 증가세가 경기 회복을 주도, 2020년 한 해 기록적인 무역 흑자 달성
 -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수혜와 방역 성공에 힘입어 수출 성장 유지, 2020년 한 해 기록적인 무역흑자 달성 ('19년 99억 4,000만 달러 → '20년 199억 5,000만 달러) 및 전년 대비 무역흑자 100% 증가
 - Fitch Solutions은 베트남의 기록적인 무역흑자 덕분에 2020년 기준 외환보유고는 1,600억 달러 규모로 상승하고 유동성 비율도 2019년 270%에서 2020년 343%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분석

□ 베트남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FDI 기업군

- FDI 기업이 베트남 수출 성장을 견인
 - '20년도 FDI 기업의 수출액은 2,033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대비 72.2% 비중을 차지하여, 베트남 대외교역에 있어서 FDI 기업의 높은 의존도를 방증
 - *연도별 FDI 기업의 수출액 비중 추이: (2014년) 62.5% → (2015년) 68.2% → (2016년) 70.2% → (2017년) 71.1% → (2018년) 70.5% → (2019년) 68.0% → (2020년) 72.2%
 - *그러나 주요 수출대상국의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대외수요 악화 우려 존재

□ 젊은 인구를 보유한 떠오르는 신흥시장

- 베트남은 약 9,7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5위 거대국가로, ASEAN 회원국 가운데서는 인도네시아(2억 7천만 명, 세계 4위), 필리핀(약 1억 900만 명, 세계 13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
 - *기대수명 상승과 높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2023년경 1억 명 돌파, 2050년까지 1억 2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World Bank)
- 소득증가와 중산층 증대로 우수한 소비시장 보유
 - 주요 소비계층인 20~49세까지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35년에는 중산층 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는 15~34세의 젊은 층이 베트남 내수시장의 핵심 소비계층으로 부상
 - 청소년기 및 결혼-육아기 연령층 소비자의 주요 소비품목인 IT 제품, 생활가전제품, 유아용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 대도시 거주 중산층 가구를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
 - *베트남 중위소득 1가구 당 가처분소득은 2016년 837달러에서 2021년 1,352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며 베트남의 중산층은 2020년 까지 4,400만 명, 2030년까지 9,5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PwC)
-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 상거래 시장 중 하나로 연간 성장률 35%를 기록, 일본 보다 2.5배 높은 성장률을 보임.
 - Lazada, Shopee, Tiki, Sendo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Big4로 꼽히며 은행들과 제휴를 맺고 자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출 증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도시 (하노이, 호치민, 다낭)의 오프라인 쇼핑인구 중 20~30%가 온라인 쇼핑인구로 전환(Nielson)
 - *온라인 배달 서비스 음식주문 플랫폼(Grab Food, Now, Baemin 등)의 배달 음식 주문량은 코로나 19 유행 이전보다 50% 증가, 지속 성장 전망
 - *식료품 및 생필품 구매는 주로 Grab Martt, Vinmart, Co.op, Chopp등의 모바일 플랫폼을 선호
- 가처분소득 증가 및 경기 활성화에 따른 소비 지출 확대,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지속 성장할 전망
*20년 기준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8% 성장한 미화 118억 달러, 2021~2025년 기간 연 평균 25% 성장하고, 2025년까지 3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iDEA, 베트남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

□ 1국 3색의 베트남

- 베트남 북부·중부·남부는 물리적 거리, 역사적 배경, 상이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해 성장 격차가 상당하며, 소비성향과 투자환경 면에서 차이가 뚜렷
- 2021년 6월 기준 하노이 인구는 778만 명, 호치민 인구는 863만 명으로 총 인구 9천 8 백만 명의 약 16.7%가 거주하고 있는 호치민시(남부)와 하노이(북부)를 중심으로 경제가 발달해 있으며, 최근에는 하이테크파크(DHTP)건립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도약을 꿈꾸는 다낭(중부)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
 -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베트남의 호치민시와 하노이가 각각 3위와 7위로 선정, 하노이는 전년 8위에 비해 한 계단 상승
- (호치민시) 베트남 경제도시이자 최대 소비시장
 - 의류·섬유, 경공업, 유통, 부동산, 건설 등 다양한 분야 투자 러시, 닌투언성, 빈투언성 등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스마트시티 등의 프로젝트 진행 중
 - 호치민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주자 소득수준, 쇼핑·외식·여가 지출에 관대한 성향, 새로운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 등으로 소비재 진출 시장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
 - 베트남 시장의 테스트 베드로 주목을 받으며 상당수의 기업, 스타트업이 호치민 시에 전초기지를 구축
- (하노이) 하노이를 중심으로 대기업 및 1,2차 협력사 중심 투자
 - 소비시장 측면에서 하노이는 거주자들의 소비지출에 인색한 태도, 기존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로 인해 신규 소비재 품목 진출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 단, 과시적 소비성향이 강해 초고가 브랜드 입점이 활발한 편
 - 최근에는 인프라 개선과 행정개혁에 주력하고 있으며 동남권 유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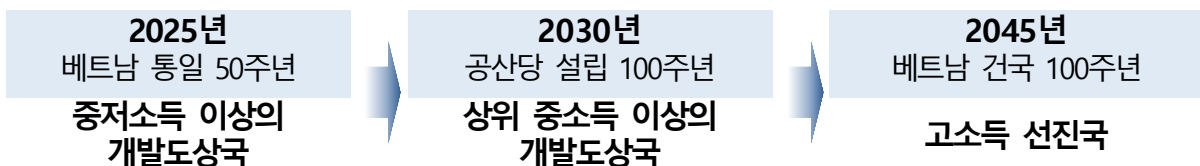
투자지로 재조명받고 있음.

- 삼성, LG등 국내 전기.전자 대기업의 북부지역 투자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협력업체 상당수가 하이퐁시, 박닌성, 타이응우옌성 등에 진출
- (다낭) 베트남 대표 관광도시에서 동남권 하이테크 경제도시로 도약 추진
 - 2013년 하이테크파크 조성 후 외국인직접투자(FDI) 9건을 포함 총 18개 프로젝트에서 미화 5억 6400만 달러 유치
 - *미국의 유니버설알로이(Universal Alloy,UAC)는 보잉, 에어버스 등의 부품 공급 업체로서 다낭 Sunshine Aerospace 공장에서 4천여 종의 항공부품을 생산하여 북미, 유럽, 아시아로 수출
 - 외국자본의 고급 리조트 건설과 국제 직항노선 신규 취항이 잇따르면서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 지역의 대표적 휴양지로 꼽히고 있음.
 -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낭의 관광 및 여행 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다낭시 관광국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중 약 50%를 차지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관광수입 역시 전년 대비 20.7% 감소할 것으로 전망

2. 베트남의 정책 동향

□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목표 설정

- 베트남은 2021년 1월25일~2.1일 개최된 제13차 전당대회에서 중장기 국가 발전 목표 설정을 시행함.
- (중장기 목표 및 전략 발표) '사회주의 지향 선진국 진입'*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승인
 - *베트남 건국 100주년인 2045년까지 1인당 GDP 1만 2천달러의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 목표
 - **베 정부는 10년 단위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이행 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목표 제시



- 또한 이를 위해 주요 과제 및 ▲선별적 FDI유치 및 국영기업 민영화, ▲고급 인력 양성, ▲교통, 에너지, IT 인프라 우선 구축을 3대 전략적 동력으로 발표

<주요 과제 및 목표>

분야	주요내용
거시경제	▶ 연평균 GDP 성장률 7%, 제조업·디지털 경제 비중 30% 등
산업	▶ 혁신·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인프라 개발
무역	▶ FTA활용을 통한 수출 시장 확보, WTO 질서 준수
외교	▶ 다자외교 증진 및 다자기구에 대한 적극적 기여

-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목표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p>▶ 2021~2030 사회경제개발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연평균 GDP 성장률 7% 시현, '30년 1인당 GDP 7.5천불 달성, 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6.5% 달성, 연평균 에너지 소비율 1~1.5% 감소 등 - (3대 전략적 동력) ⁱ⁾글로벌 경제 편입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 ⁱⁱ⁾고급인재/인력 양성, ⁱⁱⁱ⁾인프라 확충 - (과제 및 달성방안) 행정절차 개혁을 통한 영업활동 자유 보장, 디지털 전환 촉진, 외투기업의 R&D, 혁신센터 설립 장려, 교육기관 품질개선 및 온라인 교육 강화, 국유기업 구조조정·매각 등 효율 개선, 인프라개발 및 해양경제 개발 등 	<p>▶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이행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대비 소비자물가 안정화, 외환보유고 증대, 국가신용도 상승, 경상경비 감소,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감소 등 양호한 경제지표 시현 - 환경·자원관리 개선, 행정개혁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 국방·안보 강화 <p>▶ 2021~2025 사회경제개발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GDP 성장률 6.5~7% 유지, '25년 1인당 GDP 4.5~5천불 달성, 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6.5% 달성 - 코로나19 효과적 통제, 시장경제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물가 관리 - 자원 개발, 인프라사업 시행 촉진, 인적자원의 질 향상, 과학기술 발전·혁신 촉진 - 국가관리 효율성 제고 및 부패 방지, 국방·안보 강화 등

- 4차 산업혁명시대 동남아시아 IT강국 지향
 - 2019년부터 「Make in Vietnam」 4차 산업혁명 증진 캠페인을 통해 10만개의 첨단기술을 가진 로컬기업을 육성하고 2030년까지 IT(정보기술)분야 세계 30위 진입을 목표로함.
 -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의 GDP 점유율 30%로 확대,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개혁과 규제 샌드박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
-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 기업중심의 발전 지향, 신규 정책 파일럿 테스트 허용,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리스크 감수, 디지털 기술 - 5G, 인공지능, 블록체인, 3D프린터,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보안- 의 응용확대, 청정 에너지, 환경 기술, 생산성 향상, 경제 효율성 증대, 스타트업 생태계 계발 및 기초과학 연구 투자에 초점

- 해외투자요건 및 투자유치정책 개선 의결
 - 2019년 8월 20일, '2030년까지의 베트남 해외투자 협력에 대한 효율 증대 목적 정책, 체제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 (정치부 의결서 No. 50-NQ/TW)
 - 베트남 정부의 투자 유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유치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률 및 정책 시스템 연동,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정책 투명화, 스타트업 및 혁신 산업 지원책, 지역별 균형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국제 표준 부합 기술 표준 마련 및 미비점 보완, 투자자 책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투자관리 및 감독기관 확립 등의 세부 의결서 발표
- 제조업 육성 정책
 - 「2035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2014년 6월 9일자 Decision 879/QD-TTg)을 통해 제조업을 우선 발전 부문으로 선정
 - 농업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농림수산업, 수출용 섬유·의류 및 가죽·신발 제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채택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
 - 베트남의 부품·소재산업 발달 미비는 현지 제조 산업 고도화 및 글로벌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자, 베트남 무역적자의 주요인
 - 중간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기업 간 자구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도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동 부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함.

□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노력 가속화

- '86년 제6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라는 정책을 도입한 이후, 베트남은 서구 국가들과 통상 관계를 확대하고 실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중
- 자주적이고 실리적인 외교·통상정책을 펼치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FTA 및 경제공동체 조성에 적극 참여 중
- 특히, 미국을 제외한 TPP 회원국들의 CPTPP 발효, '20년 8월 1일 발효된 EVFTA, RCEP 등의 영향으로 베트남은 유리한 통상환경 속에서 외국인 투자 및 교역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

<베트남의 FTA 추진 현황>

구분	발효 중	발효 예정 (타결·서명)	협상 중	검토 중
ASEAN 차원	AIFTA(인도, '10.1. 발효), AANZFTA(호주/뉴질랜드, '10.1. 발효) AKFTA(한국, '07.6. 발효) AJCEP(일본, '8.12. 발효), ACFTA(중국, '05.7. 발효) AHKFTA(홍콩, '19.6. 발효)	-	RCEP,	-
베트남 단독	AEC(아세안경제공동체, '15.12. 출범), VJEPA(일본, '09.10. 발효), VCFTA(칠레, '14.1. 발효) VKFTA(한국, '15.12. 발효), VA-EAEU FTA(유라시아경제연합, '16.10. 발효) CPTPP('19.1. 발효), EVFTA('20.8. 발효)	-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VIFTA (이스라엘)	FTAAP

자료원 :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 WTO센터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CPTPP 및 ASEAN-홍콩 FTA 정식 발효(2019.06)
- 2019년 1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진보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 정식 발효됨. 베트남은 CPTPP를 통해 회원국, 특히 기존 FTA 미체결국가였던 멕시코, 캐나다, 페루로의 수출 확대를 기대

- EU-베트남 FTA(EVFTA)발효(2020.08.01)
 - 베트남과 EU 양자간의 FTA 협상이 타결('15년 8월)된 이후, 양측은 '18년 10월 FTA 서명을 완료하고, 2019년 6월 30일 EU-베트남 FTA를 정식 체결
 - EU의회 및 정상회의는 2020년 2월과 3월 각각 EU베트남FTA(EVFTA) 비준, 베트남 국회는 2020년 6월 8일 EVFTA비준, 2020년 8월부로 EVFTA 발효.
 - EU로 수출되는 베트남 물품 70.3%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 7년 후에는 99.7%의 관세가 사라져 특히 의류·식료품등의 EU시장 진출 기회 다대
- *EU-베트남 FTA 협상개시('12.06) → 양국 12차 협상완료('12.06) → EU-베트남 FTA 타결('15.08) → EU-베트남 FTA 체결('15.12) → FTA 및 투자보호협정문 검토완료('18.08) → FTA 및 투자보호협정문 서명완료('19.06) → EU의회('20.02) 및 EU정상회의('20.03) 각EVFTA비준 → 베트남 국회 EVFTA비준('20.06) → EVFTA발효('20.08)

□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개정 및 정비

- 자본력이 부족한 베트남에서 FDI 자본은 베트남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
 -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체제 정비 및 내부 구조조정, 관련법 개정을 지속 추진 중
- 2014년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개정법들은 2015년 7월 1일부로 발효
 - (투자법) '20년 6월 17일 베트남 국회 9차 회기에서 투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2014년 재정된 베트남 투자법 No.67/2014/QH13을 대체하여 2021년 1월 1일부로 효력 발생

□ 수정 투자법 주요 개정 내용

- ① 채권 추심 서비스 투자금지 분야로 지정
- ② 다수 사업 투자분야 조건부 사업 목록에서 제외 투자 자율성 증대
- ③ 조건부 사업 투자분야 추가
- ④ 특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 규정 신설
- ⑤ 프로젝트 실현 보증금 제도 실시
- ⑥ 투자 인센티브 수혜 대상에 대한 규정 수정
- ⑦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베트남 시장접근 조건, 분야 공개 규정화

- (기업법) 법인설립 시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에게 동일한 방식의 ERC 신청 규정, 법인설립인증서 발급 시일을 3일 단축, 외국인 지분 51% 이상

- 투자 시 외국인투자기업(FDI)법 적용, 법인 이사회 의사결정 정족수 기준 일부 완화 등이 골자
- (주택법) 비자 승인을 받은 모든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취득요건을 완화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 2020년까지 사업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의 지속적 이행을 결의(Resolution 19-2017/ND-CP)
 - 특히, 각종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을 ASEAN 4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민간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 추진

- 국영기업 혁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 도모
 - 국영기업 부분민영화-주식화로 전략적 투자유치 도모 및 경제적 효율성, 투명도를 추구
- 국영기업 내 국가 지분 매각 추진
 - 베트남 정부는 지속 확대되는 국영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 중
 -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17년도 베트남의 500대 기업 중 민간기업의 비중은 50% 까지 확대, 10년 전인 '07년도 민간기업 비중은 20% 내외 수준, 정부는 '20년까지 105개 이상의 공기업 민영화를 목표로 하나 실제 민영화 비율은 낮은 편
 - 국영기업의 주식 매각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17년 8월, 결정문 Decision 1232/QD-TTg을 발표하고 정부 투자금 회수 리스트를 공개, 단계적으로 지분 매각 진행 중
 - *연도별 투자금 회수 대상 기업 : ('17년) 135개 → ('18년) 181개 → ('19년) 62개 → ('20년) 28개
- 중소기업지원법 도입
 - 베트남 정부는 민간기업, 특히 전체 기업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수립, 추진 중
 - 베트남 최초로 발의된 중소기업지원법이 2017년 6월 국회를 통과, 2018년 1월 시행
 - *은행 대출 용이화, 법인세 감액(최대 3% 감액), 중소기업 대상 전국구 지원 프로그램 구축, 창업기업의 사업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마련이 주요 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 인센티브 세부 규정 마련
 - 2020년 3월 30일 투자법에 관한 시행령(No. 118/2015/NDCP) 상의 인센티브 대상을 보완하는 시행령 (No.37/2020/ND-CP)을 공포하였으며 해당 내용에는 인센티브 대상 투자 활동이 추가(20.5.15일 발효)
 -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제품 유통 투자,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관련 투자, 기술설비 투자, 스타트업 공간 제공 및 홍보 등의 지원 사업 투자 등임

 - 2019년 베트남 정부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감면 조항을 신설
 - Decree No.13/2019/ND-CP에 따르면 베트남 내 과학·기술 분야 기업은 특정 조건하에 법인 설립후 4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이후 9년간 50% 감면 가능
 - 베트남 기획투자부 국가혁신센터(NIC)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 스타트업에 유치된 투자금은 전년 대비 48% 감소한 4억 5,100만 달러임. 이는 코로나19에 의해 전년 대비 대규모 투자가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추정
 - 그러나 투자 갯수로는 2020년 하반기 60건을 기록, 전년 대비 17% 감소에 불과하며 2019년과 동일한 수준
 - 베트남, 2020년 스타트업 생태계 우수 국가 순위에서 전년 대비 13 계단 상승한 59위를 기록하고 2020년 상반기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기술 스타트업 총 투자비율 3위를 차지(싱가포르 37%, 인도네시아 30%, 베트남 16%)
 - 호치민시는 동남아 혁신 허브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 까지 1,000개의 스타트업 프로젝트 육성 계획을 승인, 2,000개 기업이 혁신 역량을 향상시키고, 100개의 기업이 벤처캐피탈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PPP(민관합작)법 통과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 기대
 - 민관합작프로젝트(PPP)법은 2020년 6월 18일 국회 통과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 발효(64/2020/QH14), 2021년 3월 세부시행령 발표(28/2021/ND-CP, 35/2021/ND-CP)
 - 기존 시행령(63/2018/ND-CP)대비 기반시설 투자 가능 영역 추가, 최소 자기자본 상향조정, 투자 인센티브 및 리스크 분담, 외화 태환 허용 등의 법령 신설
 - 경제성장과 함께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베트남 정부는 PPP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활용코자 함
- *PPP법 제정 과정 : ('07년) Decree 78/2007/ND-CP → ('09년) Decree 108/2009/ND-CP → ('15년) Decree 15/2015/ND-CP: PPP → ('18년) Decree 63/2018/ND-CP:PPP → ('20년) Law No.64/2020/QH14 : PPP 법안 통과 → ('21년 1월 1일) PPP법 발효

IV. 베트남 경제전망

□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장세 기록

- (경제현황) 2020년 4분기 이후의 경기 회복 흐름과 신속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통제로 '21년 2분기 GDP 5.64% 성장
 - 수출, 투자, 산업생산 지수 등 주요 거시지표 호조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2분기 기준 거시경제지표(전년 동기비) : 수출(+32%), FDI(+6.8%), 산업생산지수(+11.6%)
- (경제전망) 주요 거시경제지표 상승, 소비심리 개선은 베트남 경제 회복 흐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나 남부 중심 코로나19 4차 확산 지속 등 일부 불확실성 상존
- 베트남 정부, 2021년 경제성장 목표 6.5~7.0%에서 9월 6.0~6.5%로 하향 조정
 - 베트남은 당초 코로나19 방역에 자신감을 갖고 2021년 경제성장 목표를 6.5~7.0%로 높게 설정
 - 기획투자부, 4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4차 확산 조기진정 실패에 따라 조업 중단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성장 둔화가 예측되자 기획재정부는 당초 성장 목표를 6.0~6.5% 로 하향 조정 건의

<2021년 베트남의 경제 개발 관련 목표>

구분	2021년 연초 베트남 정부 목표
GDP 증가율	6.5%
수출 증가율	4-5%
수출액 대비 무역 적자율	3% 미만
상품·서비스 소매 매출	8%
외국인 방문객	220만~370만 명
도시 실업률	4% 이하
신설 기업 수	14만 개

자료원: Resolution No.1/NQ-CP,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주요 기관별 베트남 경제성장 전망치>

IMF(4월)	ADB(4월)	World Bank(4월)	Fitch Solutions(5월)
6.5%	6.7%	6.6%	5.8%

자료원: 각 기관발표자료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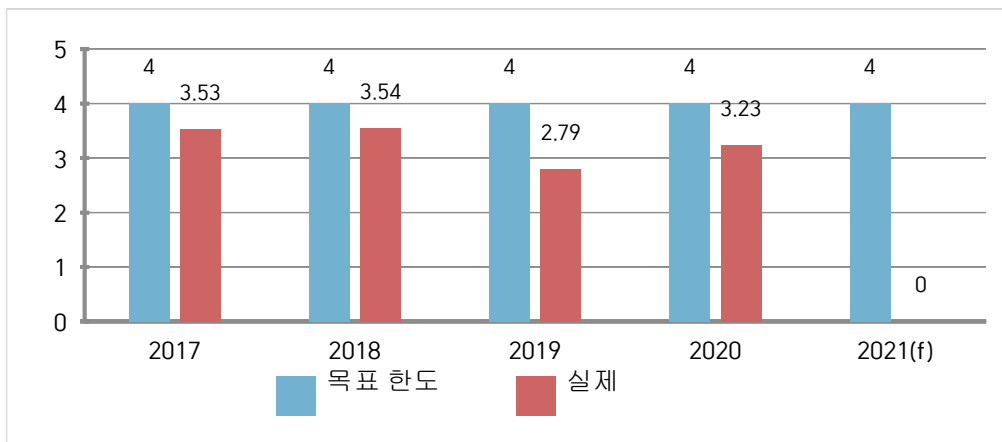
<베트남 정부의 2021년 GDP 성장 목표 및 실제 GDP 성장률>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반기	1~3분기	연간
GDP 목표	5.12%	7.11%	6.71%	6.67%	6.22%	6.43%	6.5%
실제 GDP	4.48%	-	-	-	-	-	-

자료원 : 베트남 국회 결의안 Resolution No.01/NQ-CP, 베트남 통계청

- (물가 및 소비) 2021년 물가 상승률은 4% 미만대로 전망 (업데이트 완료)
 - 2020년도 경제성장률은 2.91%로 베트남은 ASEAN 역내 국가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을 보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3.23%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어 당초 베트남 정부의 목표인 4% 이하 수준을 달성함.
 - *베트남의 연평균 CPI 상승률 추이(%): ('13년) 6.60% → ('14년) 4.09% → ('15년) 0.63% → ('16년) 2.66% → ('17년) 3.53% → ('18년) 3.54% → ('19년) 2.79% → ('20년) 3.23% → ('21년 목표) 4.0%
 - 베트남 정부는 2021년도 물가 상승률 목표를 4% 이하로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 감소, 주식 시장 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화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힘

<최근 베트남의 물가 상승률(CPI) 추이>
(단위: %)



* 주: 2021년도는 베트남 정부의 목표치(4%미만)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 대내외적 기회와 위협 요인 상존

-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인한 베트남 영향
 - 20년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6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 상승, 미-중 무역전쟁의 반사이익 수혜를 입는 것으로 관측
 - *베트남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동향 : '14년 223억달러, '15년 257억달러, '16년 297억달러, '17년 323억달러, '18년 348억달러, '19년 469억 달러, '20년 634억 달러 (자료원: 베트남 관세총국)

- 미국, 베트남을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부터 4개월만에 철회
 -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와 달리 유화적 입장으로 환율 정책의 전환을 시사하면서 '중국견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전망
 - *미 재무부는 '21년 4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을 환율조작국 지정 4개월 만에 환율조작국에서 철회

- 베트남-EU FTA(EVFTA) 발효로 인한 유럽권 수출확대 기회 (업데이트 필요)
 - '20년 6월 30일 베트남-EU 양국은 FTA 및 투자보호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20년 8월 1일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이 발효됨.
 - 베트남은 싱가포르에 이어, EU와 FTA를 맺은 두 번째 아세안 국가가 됨.
 - *'12년 6월부터 베트남-EU는 FTA협상을 개시했으며, '15년 8월, FTA 협상 타결 선언, FTA 및 투자보호협정문 검토를 거쳐 '19년 6월 양측의 최종 서명이 완료 후 20년 8월 1일자로 발효
 - EVFTA는 베트남이 체결한 FTA 중 관세 철폐율이 가장 높은 협정으로, 100%에 가까운 관세 철폐율을 보여, 5억 인구의 EU시장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수출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진출 기업들은 GSP특혜세율과 EVFTA세율 및 원산지증명서 선택 발행, 정확한 원산지 판정에 입각한 원산지 증명서 발행 등의 관리가 필요
 - *FTA 발효 이후 대 EU 수출액은 '19년도 20%, '25년도에는 42.7% 증가 전망(베트남 기획투자부)

- 미중 무역 갈등에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심화된 글로벌밸류체인(GVC)의 변화는 탈 중국화 가속 및 베트남 투자 확대로 이어질 전망
 - 애플, HP, Dell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거점의 베트남 분산 이동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15개 이상의 일본 기업의 중국→베트남 공장 이전 지원 계획을 밝힘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위한 전향적 노력
 - 2020년 6월 23일 한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15개국 통상 장관들은 화상 회의를 통해 연내 RCEP 서명 의지를 재확인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 필요성이 주요 안건중 하나로 논의
 - 베트남은 GVC 편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역협정 체결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RCEP 체결은 베트남 기업들의 무역원활화 및 역내산 인정 확률 제고 등 베트남 수출 성장에 플러스 요인이 될 전망이다.

V. 체류 시 참고사항

1. 날씨

- 복장 : 여름용 정장 및 평상복
- 하노이에는 봄, 여름, 가을이 존재하며 연중 고습함. 여름은 고온다습하나, 봄, 가을은 일교차가 심하며 일몰 후에는 서늘하므로 온도차를 고려하여 얇은 긴소매 겉옷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2. 입국 시 유의사항(21년 9월 기준)

- '10. 9월부터 입국신고 간소화로 출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서 작성 불요
- 한편 여권 훼손, 분실 시 출입국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
- '20년 7월 1일 출입국법 개정(Law No.51/2019/QH14)
 - 출국 후 30일 이내 재입국 비자면제 불가 규정 삭제(30일 이내 무비자 재입국 가능)
 - 관광비자(DL) 기존 최대 3개월에서 개정 이후 최대 30일 발급만 가능
 - *관광비자를 90일 마다 연장,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 노동허가와 비자 혹은 거주증 없이 근로하는 경우 최대 미화 약 1천 달러의 벌금 및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음, 향후 베트남 입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베트남은 '20년 3월부터 비자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교, 공무수행자 및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 인력, 사업관리자, 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임. 특히 베트남에 입국한 상태가 아니라면 신규 노동허가나 비자 발급에 변수가 있음을 주의해야 함. 코로나19 상황에서 베트남 입국시 특별입국, 개별입국 두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각 유형별로 승인주체와 준비서류가 상이(베트남 입국 규제 및 특별 입국에 관한 규정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베트남 코로나19 현황 정보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특별입국은 대한상공회의소(하노이/호치민), 한인회(하노이/호치민/다낭), 하노이 중소기업연합회 등 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전문가 특별

입국목적에 대한 베트남 총리실의 승인서를 득해야 입국 가능. 관련 정보는 각 주관단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사설업체를 통한 특별입국은 불가하므로 주의를 요망)

*개별입국은 초청 현지기업 소재 성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의 승인을 개별적으로 득하여 입국하는 방식으로 여행사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21년 9월 기준 주1회 입국 시행 중

*해외 신규 입국자는 9.21일 기준으로 입국 목적과 방식에 예외 없이 의무 시설격리 14일, 자가격리 14일을 시행해야 함. 단,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는 시설격리 7일 이후 의료 모니터링 7일 필요(해당 내용은 베트남 정부 정책에 따라 가변적임)

3. 환율 및 통화

- 통화 : 베트남 동(VND)
- 환율
 - USD 1 = VND 23,778 ('21.9.21. 베트남 중앙은행 현금매도 환율 기준)
 - KRW 1 = VND 21.79 ('21.9.21. KEB하나은행 현금매도 환율 기준)

4. 대중교통

- 대중교통 :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 불명확하므로 택시이용 편리
- 요금
 - 기본요금은 택시회사에 따라 VND 5,000~12,000까지 상이, 기본요금 이후 킬로미터당 VND 13,000이 부과
 -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상업중심지구(CBD)까지의 평균 택시비는 약 VND 200,000~300,000(약 1만~1만 5천원)이며, 가까운 시내 주행 시 VND 60,000(약 3천원) 정도

5. Tip 제도

- 베트남에서는 정상요금에 봉사료가 포함, 팁 지불 불요

6. 시차 및 근무시간

- 시차 : 한국보다 2시간 느림 (한국 9시는 베트남 7시)
- 근무시간 : 관공서와 은행은 주 5일 근무제(월~금)를 실시(07:30-16:30)
- *베트남 신한은행과 Techcombank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경우가 있음

7. 전압 : 220V / 50Hz (3상 콘센트, 호텔은 한국 2상 콘센트 사용가능)

8. 전화 거는 방법

- 베트남에서 외국전화시 00 먼저 누르고 국가번호 및 전화번호 누름

9. 유의사항

- 소매치기/강도 및 시클로(삼륜 자전거) 주의
 - 최근 외국인대상 소매치기/강도 등 범죄 증가, 늦은 시간 혼자 배회 자제
 - 최근 시클로 및 세움(오토바이택시)의 경우, 바가지 요금 및 범죄 행각 증가
- 보행 시 주의요망
 - 도로에 신호등, 육교 등이 거의 없어 도로 횡단 시 매우 위험
 - 도로, 호텔 근처에서 호객을 하는 경우는 장물일 확률이 높으므로 구매 지양
 - 현지인과 사소한 문제로 언쟁할 경우, 집단구타, 흉기위험이 있을 수 있음
 - 지갑, 여권, 휴대폰, 테블릿 PC 등의 도난 주의
- 음료수 등 음식물 주의
 - 길거리 음식 및 해산물은 간염, 이질 등 위험이 높음. 가능한 끓인 물,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것이 바람직
- 택시 이용 시 주의요망
 - 가능한 호텔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람터 미터기에 나온 금액보다 더 나왔을 경우 가능한 적은 금액은 포기하는 것이 신변에 안전함
 - 택시기사 중 일부는 분쟁발생시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음
 - 택시 이용 시 가급적 Vinasun, MaiLinh, Grab 등 유명 회사 택시 탑승을 권장
- 베트남 유흥업소 출입은 매우 위험
 -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호객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베트남 정부는 현지 유흥업소 및 마사지샵 등을 불시 집중단속하여 성매매 사범 등을 구금 및 강제추방하고 있음(베트남은 매춘 금지 국가)

VI. 주요 연락처

- KOTRA 하노이무역관(KOTRA Hanoi Korea Business Center)
 - 주소 : 20th floor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 Cau Giay Dist. Hanoi, Vietnam
 - 전화 : (+84)24-3946-0511, 팩스: (+84)24-3946-0519

- 한국 대사관(하노이)
 - 주소 : SQ4 Diplomatic Complex, Do Nhuan St, Xuan Tao, Bac Tu Liem, Hanoi, Vietnam
 - 전화 : (+84)24-3831-5111, 영사부 (+84)24-3771-0404

- 한국 총영사관(호치민)
 - 주소 : 107 Nguyen Du St., Dist.1 HCMC, Vietnam
 - 전화 : (+84)28-3822-5757 팩스 : (+84)28-3822-5750

- 항공사
 - 대한항공 : (+84)24-3934-7247
 - 아시아나항공 : (+84)24-3771-4094
 - 베트남항공 : (+84)24-3832-0320

- 국내은행
 - 신한비나은행 : (+84)24-3724-6814
 - 우리은행 : (+84)24-3831-5281-9
 - 외환은행 : (+84)24-3771-6800

- 긴급의료시설
 - 빈멕 병원 : Vinmec International Hospital
 - 주소 : 458Minh Khai, Hai Ba Trung, Hanoi
 - 전화 : (+84)24-3974 3556 응급실: (+84)24-3974 4333

□ 현지 주요식당

<한 식>

고궁	2nd Fl, APT, A201-204, Keangnam, Pham Hung	024)3762-4332	일반한식집
목향	1st Fl, Golden Palace, str. Me Tri	024)3556-9548	일반한식집
비원	9F Landmark 72 Tower, Mễ Trì, Từ Liêm	097-625-3300	일반한식집
귀빈	5 Villa Thanh cong St, Ba Dinh	024)3772-1788-9	일반한식집
아리랑	117 Tran Duy Hung St.,그랜드플라자호텔3층	024)3555-1000	일반한식집
고주몽	6F, Lotte Department Store	024) 3333-2641	일반한식집
식객	9F Landmark 72 Tower, Mễ Trì, Từ Liêm	024)0764-743-113	일반한식집
맛찬들	Từ Liêm, CT4 ĐN KĐT Mỹ Đình - Đường	024)3204-5112	일반한식점

<중 식>

대우호텔 Silk Road	360 Kim Ma str, Ba Dinh	024)3831-5000	고급중식
연경	8th Fl., Keangnam, Pham Hung, Cau Giay	024)6282-3355	일반중식
자금성	1st Fl., Keangnam, Pham Hung, Cau Giay	024)3772-3803	일반중식

<일 식>

대우호텔 에도(edo)	360 kim Ma str, Ba Dinh	024)3831-5000	고급일식
하나유키(영어 x)	15 Dao Tan str, Ba Dinh	024)3766-8972	일반일식
제주취명	1st Fl., Keangnam, Pham Hung, Cau Giay	024)3377-4888	한국식 일식

<베트남식>

Quan An Ngon	25T2 Hoang Dao Thuy str , Cau Giay	024)3556-0866	베트남 전통식
Pho Bien	14, Trang Thi str, Hoan Kiem	024)3928-5757	베트남 해산물
Nha Hang Hue	36 Dao Tan str, Ba Dìn	024)3760-6516	베트남 전통식

<야식배달>

놀러와	SO3 LO12A KHU DO THI TRUNG YEN	038-313-8874	후라이드 치킨
-----	--------------------------------	--------------	---------

<참고1> 한-베트남 고위급 외교 일지

- 한-베 수교 (1992. 12. 22)
- 정상급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 교류 활발
 - 1993.5월 Vo Van Kiet 총리 방한
 - 1996.11월 김영삼 대통령 방베
 - 1998.12월 김대중 대통령 방베
 - 2001.8월 Tran Duc Luong 국가주석 방한
 - 2002.4월 이한동 총리 방베
 - 2003.9월 Phan Van Khai 총리 방한
 - 2004.10월, 2006.11월 노무현 대통령 방베
 - 2007.11월 Nong Duc Manh 당서기장 방한
 - 2008.3월 Nguyen Phu Trong 국회의장 방한
 - 2008.4월 임채정 국회의장 방베
 - 2008.5월 Truong Tan Sang 당 상임서기 방한
 - 2009.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베(Korea week)
 - 2009.12월 김형오 국회의장 방베
 - 2010.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베(아세안 정상회담)
 - 2011.11월 Truong Tan Sang 국가주석 방한
 - 2013.9월 박근혜 대통령 방베
 - 2014.10월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 방한
 - 2014.12월 Nguyen Tan Dung 총리 방한,
한-베 FTA 체결 타결
 - 2015.5월 한-베 FTA 공식 서명
 - 2015.12월 한-베 FTA 공식 발효
 - 2017.4월 정세균 국회의장 방베
 - 2018.3월 문재인 대통령 방베

<참고2> 하노이 인근 주요 관광지

□ 호치민 묘소(Ho Chi Minh's Mausoleum)



- 호치민 사망(1969년)후 1975.9.2에 완공된 석재묘소로 건물 내부에 호치민 주석의 시신이 유리관 속에 안치되어 있음. 호치민은 생전에 화장을 원했으나 레닌, 스탈린의 예를 좇아 베트남 국민의 단결을 표상하기 위해 묘소 건물로 지어짐
- 묘소 뒷편(500m)에 호치민 생존 당시 거소 및 사무실용 목조건물, 호치민 박물관이 있으며 전면의 바딩(Ba Dinh) 광장(국가 주요행사 장소)을 중심으로 주석궁(President Palace), 공산당사, 국회, 외무부, 외국 공관 등 핵심기관이 위치
- 매일(월·금요일 제외) 08:00~11:00 일반에 공개되며 매년 9~11월 초순간 연례 보수기간에는 문을 닫음(호치민 시신을 러시아로 옮겨 부패방지 처리함)
- 베트남 국회와 공산당 본부 건물 건너편 넓은 바딘 광장에 갈색의 대리석으로 된 사각형의 웅장한 건물이 "독립"과 "통일"이라는 두가지 과업을 이룩해낸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호치민의 묘소로 아직까지 많은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

□ 문묘(Van Mieu)



- 11세기에 세워진 베트남 최초의 대학. 특히 그 안에 있는 규문각은 19세기 원조(沅朝)시대에 만든 82개의 비석이 세워짐. 15-18세기 30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행한 과거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새긴 82개의 진사제명비가 서있음
- 공자 위패를 모시기 위해 1070년에 세워진 이래 1076년부터는 최초의 대학으로서 유교학자를 양성했음. 문묘는 전통 베트남식 건물로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었으며 타원형의 기와로 만든 지붕이 아주 멋있고 벽이 없이 탁 트인 건물과 넓은 경내는 거리의 북적거림과는 거리가 먼 아주 조용한 명소임

□ 역사 박물관(History Museum)



- 선사시대부터 1945년까지의 베트남 역사 유물 소장
- 소재지 : 1, Pham Ngu Lao
- 1945년 이후 유물은 혁명박물관이 별도 소장

□ 전쟁(육군) 박물관(Army Museum)



- 베트남의 전쟁 역사를 보존하는 박물관으로서, 디엔비엔푸 전투, 월남전쟁, 사이공 함락 등 수많은 전쟁 관련 사진 및 자료가 전시되어 있음
- 박물관 뒤편에는 소련·중국에서 제공했던 무기가 설치되어 있음
- 소재지 : Dien Bien Phu 거리
- 동 박물관 우측에는 베트남 국기대(Flag Tower)인 육각형의 대형탑이 있음

□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Vietnam Museum of Ethnology)



- 베트남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엣족 외에 크메르족, 타이족, 흐몽족 등 53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임.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은 베트남에 공존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독특한 문화적 색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 박물관
- 1995년 10월 24일자 총리령에 의해 건립이 추진되어 1997년 10월 24일 정식 개관한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은 베트남 사회과학한림원 직속의 국립 박물관으로,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 소수민족의 유물과 자료를 수집, 연구, 보관, 복제하고 이를 자국민 및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교육함으로써 세계의 민족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는 데 운영 목적을 두고 있음
- 소재지 : Nguyen Van Huyen 거리

□ 하롱베이(Halong Bay)



- 하노이에서 4시간, 140km 떨어진 남동쪽 광닌(光林)성의 해안 절경지대 하롱만(Ha Long Bay)은 3천개가 넘는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졌음
- 하롱은 '하롱(下龍)'이란 뜻으로, 옛날 외적의 침략을 용이 내려와 쫓아낸 흔적이라는 전설에서 유래
- 1950년 프랑스 아세트출판사는 자연이 만들어낸 조각품인 이 섬들을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꼽음. 90년대 중반 유네스코는 하롱만을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지정

□ 땀꼭(Tam Coc)



- 하노이 남쪽 약 115km 거리에 있는 땀꼭은 '숲속의 하롱베이'라 불림. 하롱베이의 모습을 축소한 것 같은 땀꼭은 수많은 기암괴석이 불거리를 제공함
- 땀꼭은 '세계의 동굴'이라는 뜻으로, 실제 이곳에는 '항카', '항하이', '항바라'라는 동굴이 있음
- 동굴투어는 항구에서 나룻배로 이용. 오동강의 물줄기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베트남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음

□ 짱안(Trang an)



- 2010년 봄에 베트남 정부에서 닌빈 지역에 새롭게 개발한 땀꼭과 비슷한 습지 수로관광 코스
- 땀꼭은 수로를 타고 3개의 동굴 탐방이 주류를 이루지만, 장안은 48개의 동굴이 발견되어 그중에 11개의 수로동굴을 관광객에게 개방
- 배를 타고 11개의 수로동굴을 지나는 풍경이 일품

<참고3> 간단한 베트남어

안녕하세요. Xin chào. (씬 짜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Rất vui được gặp ((남) anh/(여) chị)
(젓 부이 드억 갑 (아인/찌))

상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ngài đã cho gặp.
(씬 감 언 응아이 다아 쯔 갑)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Rất có ích đối với tôi.
(젓 꼬 익 도이 버이 또이)

또 뵙겠습니다. Chúng ta sẽ gặp lại nhau. (쭙 따 세에 갑 라이 냐우)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씬 감 언)

얼마입니까? bao nhiêu tien?(바우니우 띵?)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Anh/Chi Ten gi a ?(아잉(남)/쯔이(여) 땨 지 아?)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Tên tôi là (Hongkildong). (땨 또이 라(홍길동))

잘 모르겠습니다. Tôi không biết. (또이 크음 비엣)

실례합니다. Xin lỗi. (씬 로이)

오늘 hom nay (흙 나이), 내일 ngay mai (응아이 마이), 어제 hom qua (흙 과)

[Memo]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